

## 7월 첫째 주 기사 스크랩

[주요 뉴스]



인구 1천만명 자카르타, 7월 1일부터 마트서 비닐봉지 퇴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6/667149/>)



새 먹거리 찾는 '인니 대중교통'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3011233023105>)



인니 기업 세율 추가 인하, 동남아서 가장 낮은 세금 낸다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007010757033482e8b8a793f7\\_1&md=20200701075923\\_R](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007010757033482e8b8a793f7_1&md=20200701075923_R))



LG전자, 파나소닉 등 글로벌기업 7개사,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공장 이전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007010920341244b5d048c6f3\\_1&sk=pcmain\\_0\\_1&md=20200701110449\\_R](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007010920341244b5d048c6f3_1&sk=pcmain_0_1&md=20200701110449_R))

## 인구 1천만명 자카르타, 7월 1일부터 마트서 비닐봉지 퇴출

입력 : 2020.06.30. 10:38:53

비닐봉지 대신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가방' 제공해야

인구 1천만명의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7월 1일부터 마트 등 상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다.



△인구 1천만명 자카르타, 7월 1일부터 비닐봉지 사용 금지

30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친환경 가방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에 작년 12월 서명했고, 6개월이 지난 올해 하반기부터 발효된다.

모든 마트와 쇼핑몰은 이 규정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서면경고부터 과태료, 영업정지와 취소까지 다양한 제재가 따른다.

업주들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담아줄 때 종이, 천, 잎 등을 이용해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가방'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노점 식당(와롱)의 비닐봉지 사용은 당분간 허용하기로 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노점 식당도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계속 독려하기로 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앞서 2016년부터 마트·쇼핑몰서 비닐봉지 제공 시 돈을 받도록 했으나, 1장당 200루피아(17원)에 불과해 비닐봉지 사용 억제 효과가 없었다.



△발리 인근 바다에서 촬영된 플라스틱 쓰레기

인구 2억7천만명의 인도네시아는 쓰레기 배출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해양오염원 배출국으로 꼽히기도 했다.

안도노 와리 자카르타 환경청장은 "브카시 쓰레기 매립지는 온통 비닐봉지"라며 "매립된 쓰레기는 3천900만t에 이르고, 이 가운데 34%가 비닐봉지와 플라스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쓰레기 문제는 자손들에게 점점 더 부담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발리섬은 비닐봉지·스티로폼·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

발리에 앞서 자바섬의 보고르와 보르네오섬의 반자르마신 지방 정부도 상점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자카르타 외곽 쓰레기 매립장...대부분 비닐봉지

## 새 먹거리 찾는 '印尼 대중교통'

최종수정 2020.06.30 11:23 기사입력 2020.06.30 11:23

코로나로 이용자 확 줄자 활로 모색  
문서·가정용품·식재료 배달 서비스  
역사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설로

[아시아경제 자카르타 최수진 객원기자] 인도네시아의 대중교통 기업들이 신사업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자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카르타 도시철도 사업체인 PT MRT는 대중교통 배달서비스와 스타트업, 중소기업 사업자들을 위한 온라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이용객이 줄어 비어있다시피 한 MRT 역사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설을 갖춰 업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공 택시서비스 업체인 PT 블루버드 역시 문서와 가정용품 배달 서비스인 '버드끼림'을 시작했다. 안전과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서류나 손상될 수 있는 물건을 안전교육을 받은 드라이버가 운송하도록 한 것이다.

대중교통 업체들의 변화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줄어들면서 기업의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대규모 사회적 거리두기로, MRT 자카르타 이용객 수는 올해 1~3월 하루 평균 9만~10만명에서 4~5월에는 하루 5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다만 이달 8일부터 사회적 제한조치를 완화하는 뉴노멀 정책이 시행되면서 승객 숫자는 하루 1만3000명 수준으로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해 노니 푸르노모 블루버드 대표는 "변화하는 사업환경에 긴밀히 대처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으며 윌리엄 사반다 자카르타 MRT 도시철도 대표는 "전통적 교통수단 서비스에 의존하기보다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이용한 대체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대표 국영 항공사인 가루다항공 역시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발맞춰 항공운송업체인 PT 아어로 자사 카고와 협력해 '끼림아자'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출범했다. 이르완 세티아푸트라 가루다항공 대표는 이와 관련해 자국의 1만8000여개 섬을 연결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식재료 배달 서비스 앱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영 항공사의 재정위기를 보조하기 위해 구제금융 초안까지 마련한 상태다.

부디 카리야 수마디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대중교통의 재적응 계획을 구성해 뉴노멀 정책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 최수진 객원기자 nyonyachoi@asiae.co.kr

## [글로벌-Biz 24] 인니 기업 세율 추가 인하, 동남아서 가장 낮은 세금 낸다

노정용 기자 입력 2020-07-01 07:59



인도네시아 일부 기업은 올해와 내년 19%의 낮은 소득세율을 낸다. 또 2022년부터는 법인세율 3% 추가 인하로 싱가포르보다 낮은 세율을 누리게 된다.

재무부는 지난달 코로나19의 충격 완화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업 소득세를 22%로 낮춘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세율을 내렸다.

이번 세율의 추가 인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납부하던 인도네시아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세율 인하 조치로 일부 상장사는 현재 동남아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싱가포르의 17%보다 낮은 16% 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일부에서는 해당 감세 조치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부동산 개발업계는 해당 조치로 이익을 보지 못한다. 인도네시아는 토지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해 2.5%의 최종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MNC 세쿠리타스 연구소장 에드윈 세바양은 "정부가 좀 더 광범위한 감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당수 회사들은 감세를 통해 자본 지출에 더 많은 자금을 배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세율을 15% 인하한다면, 자본유입이 급증해 고용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며 정부의 감세율에 아쉬움을 표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 [글로벌-Biz 24] LG전자, 파나소닉 등 글로벌기업 7개사,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공장 이전

박경희 기자 입력2020-07-01 11:29

8억5천만달러 투자해 3만명 고용창출 기대...17개사도 추가로 이전검토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 중부 모로알리산업단지에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 열연코일(HRC) 공장. 사진=자카르타포스트 캡처

LG전자, 파나소닉 등 글로벌기업 7개사가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자카르타포스트 등 인도네시아 현지매체들이 6월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외국기업 7개사가 인도네시아에 생산시설을 이전할 계획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 따르면 한국 LG전자와 일본 파나소닉을 포함한 7개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계획이며 모두 8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약 3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위도도 대통령은 이날 중부 자바의 바탕(Batang)산업단지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중국으로부터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계장관과 BKPM청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허가 처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BKPM 책임자에게 A부터 Z까지 모든 지원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위도도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의 토지조달문제를 강조하고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자자를 백업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생산시설을 위한 토지를 아직 조달하지 못한 투자자들을 위해 바탕산업단지를 생산시설 부지로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제한을 둔 결과 많은 프로젝트들이 늦춰졌기 때문에 해외투자자의 인도네시아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받았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1분기에 대외직접투자(FDI)가 지난해보다 9.2% 감소했던 98조 루피(약 68억 달러)에 머물렀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상황에 빠지고 중국에의 강한 의존에 의문을 갖게 된 기업도 속출했으며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은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업계에 추가관세를 부담케 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기회로 삼아 중국을 떠나려는 기업에 대해 인도네시아로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

위도도 대통령은 또한 17개사가 인도네시아에 생산시설을 세울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KPM 자료에 따르면 17개사의 잠재적인 이전과 시설확장에 따라 모두 370억 달러의 투자금이 유입돼 11만2000명의 고용창출도 기대하게 됐다.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해 33개기업이 중국을 떠났지만 어떤 기업도 인도네시아로 이전해오지 않았다면서 인도네시아가 과거 기업을 유치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파나소닉은 인도네시아를 가전제품 수출기지로 바꾸기 위해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이전했다. 또한 LG전자는 인도네시아를 지역허브로 삼아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로 시장확대를 꾀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생산시설을 이전했다.

생산시설 이전이 확인된 다른 기업으로는 대만에 거점을 둔 오디오기기 제조업체 메이룬(Meiloon), 일본고무제품업체 사가미(相模) 고무공업, 미국에 기반을 둔 경량제품업체 알판(Alpan), 대만 타이어제조업체 켄다(Kenda), 일본 자동차부품업체 덴소(Denso) 등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mailto:hjcho1017@g-enews.com)